

# 12 히스기야왕의 기도

열왕기하 18~20장, 역대하 29~32장



하나님, 우리를 구원  
하시고 주 여호와만  
이 온 세상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어,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되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땅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백성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고 크게 즐거워하며 7일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때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앗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앗수르 왕은 신하들과 많은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습니다.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많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다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성경 암송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18:3)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아에게 속지 마라.  
어떤 신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히스기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앗수르 왕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히스기아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혜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망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앗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을 겨누지도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모두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앗수르 왕은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돌아간 앗수르 왕은 자기 신에게 절할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 바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모두 골라 보세요.

- ①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      )
- ②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      )
- ③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      )
- ④ 모세가 만든 놋뱀은 남겨 놓았습니다. (      )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열왕기하 19:15)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버릴 것을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



버린 후에 기분이 어떤지 서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에서 골라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적어 보세요.

- ①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깨끗게 함을 받는다. (      )
- ②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 나쁜 마음을 내버린다. (      )
- ③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죄를 멀리한다. (      )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글을 적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일서 3:21~22)



# 알아볼까요



##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려 주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죽어야 한다면 무서울 것입니다.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병중에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암은 천천히 찾아오는데,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수술하기에 때가 늦고 맙니다.

죄도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마음은 점점 무뎌져서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만듭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고도 죄의 습관을 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작은 죄도, 무서운 병처럼 여기고 멀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 욕심이 가득 한 사람은 죄가 들어와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작은 죄도 곧 깨닫고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swers to the '부모님난' (Parent's name) question.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swers to the '선생님난' (Teacher's name) question.